

설 민심-위기의 호남정치 어디로 가는가

무등칼럼



구길용

뉴스사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민심은 천심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설 민심이다.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대화의 주제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없다. 일부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설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오히려 SNS의 힘을 빌려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여론 흐름의 중요한 척도로서 설 밭상머리 민심만한 게 없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다 그런 이유다.

이번 설 명절의 민심은 뭘니 뭘니 해도 민생경제와 정치 이슈로 모아졌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하소연, 호남의 정치가 실종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푸념들이 쏟아졌다. 시장통의 장삼이사(張三李四), 밥상머리의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 하는 얘기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소수득주 성장론을 내세워왔고,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를 챙기는 모양새지만 서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청년실업 문제 또한 심각하다. 앞으로도 경제지표가 썩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더 큰 문

제다. 정부는 여러가지 희망 섞인 자료들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설 민심이다.

경제 분야의 무기력증 못지않게 정치에서 느끼는 허탈감도 크다. 무엇보다 호남정치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곰곰이 따져보면 뼈아픈 대목이다. 과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게 호남 정치였는데, 언제부턴가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도대체 존재감이 없다. 호남지역내 다수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지만 정당 지지율은 바닥세다. 광주·전남지역에서조차 모두 5%대 미만 득표율이다. 양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이 6명이다. 이들 중에 과연 중앙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호남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퍼진다.

양 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후광효과를 등에 업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호남 제1당인 민주평화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마저 깨져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정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에 여러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뼈를 깎는 혁신 없이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여 왔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 의원들 사이에 통합논의도 있는듯 하다.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의 제3지대 통합론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호남을 매개로 한 통합론이다. 현 정치구도나 당의 낮은 지지율로는 내년 총선을 기

약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합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지는 의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오로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통합만을 꾀한다면 여론은 금세 등을 돌릴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 광주·전남 전체 18석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고작 3석이다. 그 중에 한 명은 입각한 상태라, 두 명의 국회 의원이 호남 전체를 아우르고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손혜원 의원 망투기의혹 파문이나 김경수·안희정 법정구속 등 잇따라 터져 나오는 대형 이슈들도 약제다. 여기에 현 정부의 경제실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다. 내년 총선 때까지 견고할 것만 같았던 민주당의 야성도 '이제는 한번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설 민심이 전하는 메시지가 모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호남 대권주자에 대한 기대감이 그 중에 하나다. 호남 출신이나 연 총리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호남 대권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희망 섞인 기대다. 기자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지내 정무적 능력과 행정경험을 두루 갖췄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한 사이다발언에 국민들이 열광하기도 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빠지면서 주춤하고 있고, 총리직을 내려놓았을 때 과연 확장성이 있을 것인지, 당내 좁은 입지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몇 가지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기본 좋은 상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긴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또 서민들의 얘기는 잊혀져 갈 것이다. 하지만 설 명절 민심이 전하는 준엄한 메시지만큼은 분명하다. 민생경제를 돌봐달라는 주문, 실종된 호남 정치를 되찾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할 때다. 정치가 바로 서야 호남이 살고, 나라가 산다. 내년 총선이 그리 멀지 않다.

사설

청년에게 희망주는 광주형일자리 돼야

설민심이 광주형일자리로 모아졌다. 설 민심중 상당수가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은 크게 환영했지만 성공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반응이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미래를 뒤늦게 폭발성 있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광주시가 오랜동안 공을 들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그만큼 관심도 기대도 뜨겁다. 평균 연봉 3천500만원에 근로 시간 주 44시간, 생산 규모 연간 10만대등은 임금과 생산규모는 작지만 단위 같은 소식이다. 고용 장려금까지 포함시켜도 실질임금은 4천만원 밖에 안되지만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 청년들에게 이만한 자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청년들의 절박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편지 않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침체가 겹쳐 경형 SUV 차량 연간 10만대 생산이 지속 가능한 지도 의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부족으로 신용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다. 광주형일지리는 고용 없는 성장에 시달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지금 지역 경제는 누가 뭐래도 위기다. 서민 생활은 어렵고, 자동차 하청업체들의 고통도 크다. 더욱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데 1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주문이다. 정주영 전 회장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도 시련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패는 없어야 한다. 실패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염원으로 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현대차 노조와 민노총도 지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그들의 희망을 위해서 대응적으로 결단해 주기 바란다. 비록 임금은 반 가격이지만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소박한 바람을 이 시점에서 꺾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광주시가 경영능력을 보여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적자 공장을 임금이 싸다고 무한정 끌고 갈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호소하는 바다. 지금은 모두가 같이 살아야 한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함께 사는 길을 찾는 시험대다. 지금 광주형일자리가 노사 상생의 길을 묻고 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북·미간 '빅딜'

세계적 담판이 펼쳐질 북미간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27-28일 열린다. 때맞춰 스티브 비건 미대표가 평양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담판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월 미북 정상은 건 빅딜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결정적 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2018년 7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은 8달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이전에 없는 세계적 담판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만약 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경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이번 회담은 퇴로가 없는 담판이다. 두정상의 합의 실패는 두정상의 운명에도 치명적 결과가 예고된 셈이다.

불과 1년전만 해도 두사람은 서로를 '로켓맨과 미치광이'로 비난하는 앙숙이었다. 그런 두정상이 마주 앉아 한반도 운명을 바꿀 세계적 담판을 앞두고 있으니 격세 지감이다. 1차 싱가포르 만남은 만남 그 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두사람 모두에게 이번회담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다. 그래서 회담도 이틀간 열리는 이례적 행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간이라는 긴시간을 통해 끝

장을 보겠다는 의미다.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개 축을 놓고 끝장 토론 방식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안 하나마다 한반도 운명과 직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위기는 관망이 보인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회담이어서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기대 하건데 두정상은 예상을 뛰어 넘는 담대한 합의를 했으면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야말로 빅딜이 성사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이 손을 맞잡고 세계사의 변방에서 주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 됐으면 한다. 특히 어려운 남북한 경제 현안의 돌파구를 여는데 결정적 전기를 맞출 수 있는 담판을 기대한다.

오는 2월말은 격동의 한반도에 역사적 변곡점을 맞는 시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이같은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민족 공동 번영의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격동의 시기에 정치가 발목 잡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민족이 상생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지금이다.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회담을 앞두고 우리끼리 힘을 소진 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잠시 접어 두었으면 한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컬처에세이



이대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사람은 늘 두렵다. 하지만 때때로 중요한 그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다'

'물', 내게 있어서 이겨낼 용기로 언젠가는 극복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 집은 황룡강 부근에 있었다. 무더운 여름 아이들에게 강은 미역강고, 조개 캐고, 물고기 잡는 일만큼 재미있는 놀이터는 없었기에 그 근방에 사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먼 동네 아이들까지 강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게 당연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보면 어제 강에서 함께 놀던 아이가 보이지 않을때가 있었다. 학교에선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언급하면서 강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담임선생님들을 통해 엄하게 꾸지람을 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아이들은 까마득히 잊고 물놀이 에 여념이 없었다.

다섯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매같은 무서운 눈을 피하던 어느날, 결국 아버지에게 목덜미를 잡혀 골방에서 죽지 않을만큼 맞았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 이후론 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다. 겨우 발목이나 담그는 정도였다. 버킷리스트, 물에서 자유하고 싶었다. 수영도 하고, 파도도 타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할까? 친구의 권유로 체험다이빙에 동행했다.

이 정도면 뭘 벌써 어니네! 그런데 2미터, 5미터를 내려가는데 삼장이 뛰면서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졌다. 분명 입으로 숨을 쉬라고 했는데 나코로 숨을 쉬고 허우적거렸다. 두려웠다. 죽을것만 같았다. 별정계 충혈된 눈을 뜨고 물을 뱉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도 그랬어요. 여기 다이빙 하는 사람들 대부분 물 무서워해요. 당연히 두렵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 밖에서 코로 숨쉬고 살았는데 불과 몇 시간 물속에서 잠수하는거 배운다고 물고기처럼 자

유롭게 숨 못쉬어요. 다시 할래요?"

그때, 만약 지금 그만둔다면 두 번 다시 나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거야. 물밖과 물속의 차이는 하늘과 땅, 극과 극, 완벽한 변화가 필요했다. 할 수 있을까? 깊은 숨을 내 뱉고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공기방울이 수면위로 쿵쾅거리며 피어났다. 가쁘게 내뿜던 숨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열 번에 한번은 코로 숨을 쉬었지만 내가 인지했다. 그렇게 시작한 실내다이빙은 마침내 40미터 이내 수심까지 내려가는 코스로 이어졌다.

세상에! 바다수심 39.7미터라니! 당연히 더 긴장되고 두려웠다. 그 두려움의 한계점에서 '거북이'를 만났다. 문득,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다... 이름은 굳이었는데 갑자기 봉이라는 새로 완전 변신하며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장자의 소요어에 나오는 이야기, 왜 갑자기 이게 생각났는지는 모른다. 바다, 물고기, 변신, 용기, 자유함. 드디어 수십년을 무의식 저 밑바닥에 잠겨있던 물에 대한 두려움을 직시하고 광통하니 지금껏 보지 못한 아름다움, 자유함을 느꼈다. 2019년 변화가 필요할 때, 잠시 멈춘다. 숨을 내린다. 직시한다.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려본다. 용기내어 당당히 걸어간다.

자주 섭취하여 우리 몸에 쌓이는 미세먼지와 노폐물들을 걸러 내도록 한다.

넷째,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자. 평소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대기오염 유발 행위로 줄이면서 미세먼지가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다섯째, 실내공기를 환기 시키자.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실내 오염도가 낮을 때는 기계환기 등을 통하여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또한 주기적인 물청소도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다섯 가지 행동들을 실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켜 내고 우리 모두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까지 누렸으면 한다. 유동석 (보성119안전센터)

겨울철 미세먼지 대처법

3일은 춥고 4일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지속된다. 산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 한랭기단이 한반도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겨울철 강력한 한파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파가 끝날 때쯤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포함된 온난기단이 밀려오면서 삼한사미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을 알아보자.

첫째,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자.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지수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둘째, 외출할 때 고농도 마스크를 착용하자. 식약청 인증마크('KF', '의약외품')가 없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지 못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일 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켜 내도록 한다.

셋째, 물과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자. 외출하고 난 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을

삼권분립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국가이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인 입법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행정권,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다. 세 가지 권리를 나눠놓아 국가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고 삼권분립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삼권분립이 잘 지켜져야 하며,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 및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사상이자 로크였다. 그는 '정치이론'(1690)에서 권력분립 사상을 전개했다.

그 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이라는 책을 통해 권력분립 이론을 폈다.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에 관심이 많았던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 명절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도 넘은' 판결 결과 불복 선언이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억울한 측면이 많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 여당에서 사법부 독립을 뒤늦게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려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재판장이었던 성장호 부장판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할

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순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환영은평을 냈다. 그 때는 '훗발판사'라고 치켜세우다가 지금은 '적폐판사'라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 불복 여파는 설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여당의 오만으로까지 비쳐질 정도로, 2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제소처라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지사의 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는 긍정평가 부정부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46.3%, '과도한 결정'은 36.4%, '모름·무응답'은 17.3%로 조사됐다.

민변과 경실련도 민주당의 법원 불신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판결에 문제가 있거나 억울할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법리공방을 펼쳐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레야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잃어줘야 한다.

류성훈 정치부장 rsh@srb.co.kr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 10일 창간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지)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충동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선부 (062)606-7762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취부 (062)606-7722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30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0원 |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시방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